

정규시즌 퍼펙트...찬란한 '2현의 노래'

(류현진·김광현)

류, 새 동지에서도 에이스 역할
김, ML 첫 해 신인왕 후보 거론
우려 씻고 양팀 PS 진출 이끌어



2일 귀국한 토론토 류현진(왼쪽 사진)과 세인트루이스 김광현은 소속팀이 ML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탈락해 올 시즌 일정을 마무리 했다. 류현진은 새 소속팀 토론토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냈다. 김광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메이저리그 신인왕 후보에 오를 만큼 인상적인 활약을 선보였다. 인천국제공항 | 뉴스-센티에이코(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스

의심의 여지없는 성공이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KK'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2020시즌은 훌륭했다.

토론토와 세인트루이스가 '2020시즌 메이저리그(ML)' 와일드카드 시리즈(Wild Card Series)에서 탈락하며 이들의 올 시즌도 막을 내렸다. 류현진은 2013시즌부터 2019시즌까지 7년간 정든 LA 다저스를 떠나 새 동지로 이적한 첫째, 김광현은 ML 진출 첫해라는 부담을 이겨내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정규시즌 개막이 늦춰지고 팀당 60경기 체제로 축소된 변수마저 이겨냈다는 점은 박수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류현진, 새 동지서도 에이스 본능

류현진이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어 토론토 이적을 결정했을 때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았다. 토론토가 속한 아메리칸리그(AL) 동부지구에선 전통의 강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를 비롯해 올해 지구 우승팀 탬파베이까지 버티고 있는 데다 ML을 대표하는 강타자들도 대거 포진하고 있어 다저스 시절과 견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

이 나왔다. 그러나 류현진은 정규시즌 12경기에 등판해 5승2패, 평균자책점(ERA) 2.69로 기대에 부응했다. 첫 2경기에서 ERA 8.00(9이닝 8자책점)의 부진을 겪었지만, 주무기인 포심패스트볼(포심)과 체인지업을 비롯해 컷패스트볼(커터), 투심패스트볼(투심), 커브 등의 다양한 구종을 심분 활용하며 돌파구를 찾았다. 구단이 4년 8000만 달러의 거액을 안기며 기대했던 부분을 100% 충족했다. 에이스의 역할은 물론 젊은 선수들의 성장까지 도모하며 팀을 포스트시즌(PS)에 진출시킨 공은 엄청난. 탬파베

이와 WS 2차전에서 1.2이닝 7실점(3자책점)을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토론토를 챔피언으로 만든 선수단의 신뢰는 굳건하다.

●김광현, 말 그대로 센세이션

김광현에 대해서 기대보다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개막이 늦춰지면서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첫 번째다. 정규시즌 초반에는 마무리투수로 시즌을 출발했다가 선발투수로 보직을 변경했고, 막판에는 신장경색으로 잠시 로테이션을 벗어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경기(7선발)에서 3승1세이브, 평균자책점(ERA) 1.62의 호성적을 거두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김광현의 강점은 강력한 포심이다. 그러나 구위가 뛰어난 투수들이 즐비한 ML의 투성상기존의 포심과 슬라이더를 뺏아낼 필요가 반드시 필요했고, 김광현은 커브와 체인지업의 완성도를 높여 약점을 보완했다. 이는 현지 언론에서 신인왕 후보로 꼽을 정도의 호성적으로 이어졌다. 기대 이상의 활약이 팀의 PS 진출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삼성 외인투수 잔혹사 깬 류캐넌 베이커 이후 22년만의 15승 '-1'



류캐넌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4년간(2016~2019시즌) 외국인투수의 승패마진이 마이너스(-) 30(39승69패)에 달했다. 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데려온 외국인 투수 탓에 성적을 깎아먹었다는 혹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외국인투수 잔혹사'라는 꼬리표는 늘 삼성을 따라다녔다.

그 이미지를 바꿔야 했다. 늘 외국인투수 2명이 '변수'가 되니 전력을 가늠하기 쉽지 않았다. 지난 4년간 포스트시즌(PS) 진출에도 실패했다. 여전히 선발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외국인투수를 데리고 한 시즌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 있다. 데이비드 류캐넌(31)의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류캐넌은 4일까지 올 시즌 25경기에 선발등판해 16차례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3자책점 이하 투구) 포함 14승6패, 평균자책점(ERA) 3.69의 성적을 거뒀다. 1998년 스킷 베이커 이후 22년 만에 삼성의 15승 외국인투수가 되는 것도 꿈이 아니다. 류캐넌이 선발등판한 경기에서 삼성이 16승2무7패(승률 0.696)를 기록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팀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증거다.

삼성 이 류캐넌을 선택한 이유는 모험보다 안정이었다. 일본프로야구(NPB) 야쿠르트 스왈로스(2017~2019시즌)에서 3시즌을 뛰며 아시아 무대를 경험한 점은 결과적으로 빠른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 메이저리그(ML) 필라델피아 필리스(2014~2015시즌)와 NPB에서 5시즌 동안 통산 71경기에 모두 선발등판하며 경기운영 능력을 검증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 시속 150km의 포심패스트볼(포심)과 컷패스트볼(커터), 투심패스트볼(투심), 너클커브, 체인지업의 다양한 페퍼토리에 포심의 구위, 너클커브의 낙폭까지 더하니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투수가 됐다.

삼성은 올 시즌 8위로 PS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 2021시즌까지 대비한 운영이 필요하다. 확실한 에이스가 있다면 고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류캐넌은 그 조건을 갖췄다. 관건은 재계약 여부다. 삼성 입장에서 망설임이 유가 없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게릿 콜 킬러' 최지만, 방망이 불 붙을까

(탬파베이)

6일 ALDS 양키스전 선발 출전 예고
올 시즌 콜 상대 2홈런·타율 0.667

국내 팬들에게 역대 가장 풍성한 메이저리그(ML) 포스트시즌(PS)이 기대됐지만 일찌감치 정리됐다. 유일하게 남은 '빅 리그' 최지만(29·탬파베이 레이스)을 향해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3억불의 사나이'와 맞대결에 현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 시즌 ML PS는 역대 가장 많은 세 명의 한국인 선수가 뛰었다. 그러나 류현진

(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와일드카드 시리즈 탈락으로 최지만만 디비전시리즈(DS) 무대를 밟게 됐다. 탬파베이는 6일(한국시간) 시작되는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에서 뉴욕 양키스를 상대한다.

양키스는 1차전 선발투수로 게릿 콜을 예고했다. 콜은 올 시즌에 앞서 양키스와 9년 총액 3억2400만 달러(약 3850억 원)에 계약하며 ML 역사상 최고액 FA 투수에 등극했다. 올 시즌도 정규시즌 12경기에서 7승3패, 평균자책점(ERA) 2.84를 기록하며 에이스 역할을 해냈으니 1차전 선발투



최지만

수는 당연한 결과다.

이에 반해 최지만은 정규시즌 42경기에서 우투수 상대 플레이트 요원에 머물며 타율 0.230, 3홈런, 16타점으로 고전했다. 토론토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도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만 따졌을 때 최지만은 어디까지나 조연으로 분류되는 게 맞다.

그러나 MLB닷컴은 4일 ALDS 1차전 키워드 다섯 개를 꼽았다. 그 중 하나는 최지만의 건강이다. 매체는 "최지만은 정규시즌 콜 상대로 매우 강했다"고 강조했다. 포브스 역시 "콜은 정규시즌 탬파베이 상대로 약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지만이 강력했다"고 언급했다.

현지매체의 언급대로 최지만은 콜 킬러였다. 올 시즌 3홈런 중 2개가 콜 상대였다. 통산 12타수 8안타(타율 0.667), 3홈런, 8타점의 극강이다. 최지만은 9월 13일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좌측 햄스트링을 다쳤으나 와일드카드 시리즈에 맞춰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최지만이 기대대로 천적 노릇을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라이터크기 초소형 녹음기 태워없이 연속 260시간 녹음

일반대화, 강의녹음, 증거녹취 각광...
거짓말, 탄소리, 사실왜곡 꼼짝마!
녹음을 생활화하면 문제가 술술 풀린다.

최근 테이프 없이 장시간 녹음을 할 수 있는 라이터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가 출시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 전문업체인 국제종합물산(주입문의:063-232-5877)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국내시장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주머니에도 넣고, 가방, 주머니, 증거녹음 등 사용자가 무궁무진해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일반 대화녹음은 물론 전화 및 핸드폰도 매우 깨끗하고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카세트녹음기나, 컴퓨터 등에도 음성을 옮겨 영구히 저장 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을 편집할 수 있어 사영자, 자영자, 학생, 회사원, 종교인, 주부들에게 선택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거래상 호주머니에 넣고 녹음버튼을 누르면 하면 대화내용을 선명하게 녹음 할 수 있어 각종 계약 및 거래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심리마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중요한 구두계약이나 사인상 거래에서 대화내용을 들었던 증인이 없으면 어떤 계약내용을 전면 부인하거나 '탄소리' 거짓말, '오리발', '사실왜곡' 등을 해 당황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주에서 많이 보아 왔다. 이럴 때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제품은 증거녹음 강의녹음 등에 인기를 발휘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음성감지기능(소리가 나면 녹음이 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정지 대기)비밀녹음(음성, 반복재생)기능,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기능, 녹음시간 표시기능, 삭제기능, 음량조정기능, 이어폰 사용기능, 유선전화 핸드폰 녹음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르신들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이 제품은 한시적으로 특가세일 중이다)

문의 ☎ 063-232-5877 국제종합물산

바르는 통증 크림, 참~신통하네! 근육 관절을 시원하게

관절, 무릎, 허리 등 불편한 부위에 쓰면 바르는 신제품이 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여년 넘게 건강관련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에 열정을 쏟아온 ㈜한독화장품에서 개발된 '신통크림'은 먹는 제품이 아니고 바르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어깨, 등, 손목, 무릎, 팔꿈치, 발목 등에 마사지 하듯 바른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문의전화 ☎ 080-232-5866 국제종합물산

사실은 잘못된 일입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평생 예배드려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평생 설교를 들어도 자신이 믿는 복음을 한 마디도 말할 수 없는 교회 생활이 사실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거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이 증거 되고 선포되지 않고 성경 읽어놓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해 온 참혹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① 성경은 쉽습니다.
- ② 복음은 간단합니다.
- ③ 믿음은 단순합니다.

1.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책이라고 이미 결론 내어주신 너무나 쉬운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2.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로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 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3. 믿음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 죄인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 죄인에게 복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 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 하는도다. (마가복음 7장 7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국복음회복운동 010-3708-8138